

지역 매아리

부안해경구조대, 해상순찰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최근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대비 관내 해수욕장, 주요 항 포구, 취약지역, 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관내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하고 휴가철이 도래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갯벌체험, 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많아지면서, 연안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 해경은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수욕장 및 주요 항 포구는 물론, 해양사고 취약지역 또는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위계 요소를 전 제거하고, 신속한 현장대응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해상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해경구조대 김종철 구조대장은 "이번 해상순찰을 통해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부안군 보건소가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더욱이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85℃ 이상 가열처리해 섭취해야 하며 어패류 조리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내 해안지역(계화·고사포·격포·궁항·모항·왕포·곰소)의 해수·수산물을 채취해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급성발열, 오한, 복통, 설사 등 비브리오패혈증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빠르면 9월 치매안심센터 건립 착공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체계적 지원·관리

정읍시가 빠르면 9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착공한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치매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금봉동 949-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건립에는 모두 36억6,000여만원이 소요되며, 4,822㎡의 부지에 연면적 1000㎡ 규모,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중 마치고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 내년 상반기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시설이다. 이를 통해 치매 증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질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치매 상담실과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단기 쉼터), 가족카페,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운영인력을 배치해 체계적인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과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시책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보건소 2층에 임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가 인지 저하로 나온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읍시의 이달 현재 치매노인 수는 2,916명으로 추정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현대 홈경기서 '고창군의 날' 성황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8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18라운드 경기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 FC의 홈경기에서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과 함께 '고창군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고창군의 날' 행사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고창 수박과 복분자 등 우수한 농특산품을 선보이고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에서는 이날 500여명 이상의 군민 응원단이 참여했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위해 동문 출입구에서는 명품 고창 수박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와 판매부스가 운영되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기 전에는 복분자즙 2000포를

현대모터스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에서는 이날 500여명 이상의 군민 응원단이 참여했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위해 동문 출입구에서는 명품 고창 수박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와 판매부스가 운영되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기 전에는 복분자즙 2000포를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나눠주고 하프타임에서도 이벤트를 통해 복분자즙 세트를 증정하며 경기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참여하는 기쁨도 가득한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전북현대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으로 승리를 거두어 리그 1위를 견고히 했으며,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은 고창초등학교 축구부와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구 꿈나무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옥정호 피해 주민 1억5,000만원 지원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선정

정읍시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옥정호 상류 산내면 주민들 위해 1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관련 공무원(3명)과 산내면 주민(7명)들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위원장 김

인태 부시장)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마을 공동 시설물 전기료 지원, 마을 포지판 설치, 영농방법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태 위원장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상류 지역인 산내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12월 23일)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에 근거해 지난해에도 1억5,000만원을 들여 전기와 통신료를 지원했고 소득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해 호응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회의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19일 지사 소회의실에서 평가지표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경영성과평가 지표관리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평가지표별

관리계획 및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평가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최우수부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지난해에 부진했던 지

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회의의 시간을 가졌다.

신진균 지사장은 직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전 직원이 담당자라는 마음으로 실적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 자리한 아름답고 청정한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여름 휴가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으로

화장실·샤워장·안전관리센터 등 편의시설 정비 완료

더운 여름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달래고 싶다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 자리한 아름답고 청정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이 있다.

구시포해수욕장은 명사가 십리에 펼쳐지고 송림이 우거져 오토캠핑과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백사장 앞에는 손에 잡힐 듯한 가막도가 있고, 발밑으로는 고운 금모래가 펼쳐져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해수욕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구시포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구시포해변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동호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장과 갯벌이 어우러져 얇은 수심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물놀이 즐길 수 있고 백사장 뒤편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2017년 소방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공사비 1억원

을 들여 야간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발돋움 해 해가 진 야간에 또 다른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선사한다.

또한 해수욕장 진입로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안전관리센터 등 편의시설을 정비완료 했으며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더위를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모두 날려버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고창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자율방범대, 태인 소재지 '홀썩제' 집중 단속 펼쳐

정읍시 태인면과 태인면 자율방범대(대장 이성기, 이하 자율방범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태인면 홀썩제 주차 시행과 관련, 집중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인면에서는 태인 소재지는 그간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양방향 모두 통행이 불편한데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인면을 이용하는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형버스 진출입과 주변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태인면과 자율방범대는 합동으로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 태인사거리~피향정 앞 400m 구간을 돌며 홍보 전

단을 배포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성기 자율방범대 대장은 "주차 홀썩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홀썩제에 동참할 때까지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지난 1991년 10월 조직, 28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이다. 방범대는 매일 밤 21:00 이후 태인면 취약지역 일원을 순찰하는 등 꾸준한 범죄 예방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안전을 지켜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